

도스토예프스키 《지하생활자의 수기》

수정공전의 지하실

원래 러시아어로 ‘마루바닥 밑 쥐구멍으로부터의 수기’라는 제목이 붙은 이 중편소설은 스스로를 “나는 병자이고 마음이 고약한 놈”이라고 칭하는 40세 주인공의 고백 형식으로 되어 있다. 과거 20여 년 동안 자신의 내면 즉 정신적 지하실에서 살며 경험하고 생각해 왔던 관념적 소용돌이의 독백 형식을 갖춘 1부와, 20년 전 그가 근무했던 사무실 직원들, 동창생, 그리고 창녀 리자와의 관계에서 갖게 되었던 구체적 경험과 그에 대한 정신적으로 ‘병든 자’로서의 자신의 생각들을 회고한 2부로 나뉘어 있다.

클 박이문

나는 아직도 이 소설을 처음 읽고 받은 몇 가지 충격을 잊을 수 없다. 첫째의 충격은 내가 갖고 있던 문학과 관련된다. 문학이 인간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가 미사여구로 꾸며진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둘째의 충격은 보다 본질적인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어두운 심연에서만 찾을 수 있는 적나라한 인간적 진리, 아니 ‘나 자신’의 야생적 진실과의 만남에서 받은 충격이었다. 나는 아직까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사실, 아니 어느 작가, 철학자도 알지 못했거나, 알고 있어도 말하고 싶지 않아 감추려 했던 진실을 발견했다고 확신했다. 세 번째 충격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생각이었다. 진실을 발견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 그러한 진실이 무서웠다. 이 소설보다 더 큰 나의 실존적 지각 변동을 의식하게 한 작품을 나는 아직 만나보지 못하고 있다.

마루 밑 쥐구멍, 예리한 반성을 이끌어내는 공간

이런 충격은 당시 내가 허무주의에 빠져있었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문학 소년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소설의 문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의식 있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문제이며, 이 소설의 주인공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인간 내면의 진실한 모습을 대변한다.

스스로를 “병자” “악질” “웃기는 사람” “미친 놈” 등으로 표현하는 주인공은 오히려 가장 지적인 자이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자이다. 웃기거나 미친놈이 아니라 진지하며 누구보다도 정신이 반짝이는 철학자인 것이다. 주인공이 살고 있는 지하실, ‘마루 밑 쥐구멍’은 음침하거나 어두운 곳이 아니라 피상적 세계의 본질을 대상과 거리를 두고 조용히 관찰하고 조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예리한 반성을 이끌어내는 공간이다.

어째서 그런가? 성격이 까다롭고, 사람들을 싫어하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소설의 주인공이 “병자” “악질” “웃기는 사람” “미친놈”으로 보이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그의 삶이, 타의적으로 부여된 가치를 위한 ‘정상적’ 삶의 틀에 맞추어 작동하는 공리적 사회와 그 규범 속에서 역시 관성적으로 생존하는 대중의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가치체계 속에서, 너무나 ‘비정상적’ 이기 때문이다.

이성의 산물로서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에 저항한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성적 사고, 과학적 세계관이 승리를 거두고, 그러한 근대문명에 힘입어



《지하생활자의 수기》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지음 | 이동현 옮김 | 문예출판사 | 198쪽 | 값 7,000원

유럽의 세계 식민화가 절정에 이르렀던 19세기에 태어나 작품 활동을 했다. 근대 기술문명은 진보를 의미했지만 그것은 기계적이고 인과적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과학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다.

거기에는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철학이 포함되는데,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세계를 “수정궁전”이라 부르고, 그러한 세계 속에서의 개인을 “개미집의 개미”에 비유한다. 또한 그 세계 속에서의 삶을 “피아노의 키”에 비유하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존재로 변한 인간, 피아노의 키에 지나지 않게 된 인간에 대한 강렬한 거부감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소설의 주인공은 과학과 이성, 이성의 산물로서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에 저항한다.

그는 “모든 이성이여, 꺼져라!”고 소리치며 과학에 반대하고, 피아노의 키와 같은 삶의 방식을 거부한다. “자신이 피아노의 키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임을 매 순간마다 자신에게 증명할 수 있음으로써만 개인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인간이 정말 원하는 것은 자신의 실용적 이익에 적응하기보다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은 의지, 즉 자유”라고 주인공의 입을 빌려 도스토예프스키는 외친다.

마르크스가 이성과 과학적 사고에 바탕을 둔 공산주의 사회라는 전체주의적 인류 공동체의 유토피아를 주장했던 바로 같은 시대에 도스토예프스키는 공동체의 문제에 앞서 실존적 개인의 문제에 집착하고, 진보의 의미를 경제적 발전에서가 아니라 실존적 자유의 확보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런 점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반 근대적인 실존주의자 키르케고르, 개인주의자 니체와 같은 동시대의 사상가들과 같은 편에 서서 근대적 과학적 세계관과 문명에 대항해서 싸웠던 사상적 낭만주의자였다. 그의 세계는 19세기 어느 사상가보다 포스트모던 사상에 가깝기에 그만큼 시대를 앞섰다고 볼 수 있다.

탈마법적 근대적 세계는 그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처일 수 없었

다. 그는 근대문명에 대해 어느 사상가들보다도 불편을 느꼈다. 대인관계에서 괴팍했고, ‘병자’ ‘웃기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가 주인공의 입을 빌려 말하는 생활과 정신상태는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 프로이트보다 앞선 무의식의 발견자

그러나 이 작품의 가장 큰 문학적 의미는 말끔한 옷에 가려 있는 인간의 몸, 즉 의학적으로 건전한 몸속에 존재하는 어둡고 깊은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 보인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프로이트보다 몇 십 년 앞선 무의식의 발견자, 정신 분석학의 개발자이다. 그는 “내 나이 24살 때까지 우울하고, 무질서하고, 고독한 은둔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한다.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정말 완전히 혼자다”라고 적으며, 그와 동시에 “나는 인간들과의 동지애와 친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고백한다. 자신의 삶의 양식에 대한 자부심과 연민, 우울감, 아픔을 느끼는 복잡하고 모순 되는 이중적 인간의 깊은 의식 세계를 보여준다. 우리는 도스토예프스키 의식의 지하실에서 깔끔한 과학적 공식이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복잡한 정신적 세계의 진실과 만난다. 우리는 이 한편의 중편을 통해서 보다 깊은 자기 이해에 가까워진다. 우리는 누구나 조금은 《지하생활자의 수기》의 주인공이며 그 저자 도스토예프스키의 그림자이다. **▶▶**

박이문님은 시몬스 대학 명예교수, 연세대 특별초빙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행복한 허무주의자의 열정》 《당신에겐 철학이 있습니까?》 등의 철학서와 《나비의 꿈》 등의 시집이 있다.